



옛 기량 찾은 박지성 주전 확보만 남았다

270일 만에 부상을 털고 복귀해 그라운드 적응을 마친 '산소탱크'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사진)이 이번에는 주전 확보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프리미어리그 선두로 뛰어오른 맨유는 29일(한국시간) 자정 런던 업턴파크 볼린 그라운드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007-2008 프리미어리그 20차전을 치른다. 27일 선덜랜드전에서 후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교체돼 9개월여 만에 그라운드를 밟은 박지성은 35분 동안 왕성한 활동력과 지능적인 플레이로 패스로 무릎 부상을 완전히 벗어났음을 증명했다.

경쟁자 나니 보다 활동력 앞서

퍼거슨 감독 낙점 가능성 커

맨유(승점 45) 퍼거슨 감독이 웨스트햄과 원정경기를 앞두고 박지성을 출전선수 명단에 포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박지성의 선발출전 가능성은 낮다. 주장 라이언 깁스가 선덜랜드전을 앞두고 휴식 차원에서 결장했던 만큼 퍼거슨 감독은 웨스트햄전에 깁스-호날두 측면 공격수 체제를 가동할 전망이다.

박지성은 선덜랜드전 패처럼 후반전 상황에 따라 교체로 나설 가능성이 크며 이럴 경우 경쟁자인 포르투갈 국가대표 나니와 엔트리 경쟁을 펼쳐야 한다.

하지만 나니의 팀 내 활용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뛰어난 활동력과 팀플레이에 헌신적인 박지성이 먼저 퍼거슨 감독의 선택을 받을 공산이 크다.

특히 박지성은 선덜랜드전에서 나니에게 완벽한 골 기회를 만들어주는 등 완벽한 몸 상태를 보여주면서 퍼거슨 감독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만큼 조만간 선발요원으로 자리를 잡을 전망이다.

한편 토트넘의 왼쪽 풀백 이영표(30)는 29일 자정 레딩과 홈 경기를 앞두고 7경기 연속 선발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6일 풀럼전에서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한 이영표는 과감한 오프백을 시도하며 상대 수비진의 혼을 빼놓으면서 5-1 대승에 기여했던 만큼 재등장 역시 뛰어난 공격 가담이 예상된다.

반면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설기현은 29일 자정 버밍엄시티와 원정경기를 앞두고 있고, 이동국 역시 같은 시간 포츠머스와의 원정경기를 준비한다.

이밖에 이천수는 30일 헤렌벤과 원정경기에서 네덜란드리그 첫 골에 도전한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도 "박지성에게 선덜랜드전은 매우 중요한 경기였다. 드디어 돌아왔고 30분 이상을 소화했다. 우리 모두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스널(승점 44)과 박빙의 1위 싸움을 펼치고 있는

최희섭 연봉 동결

KIA, 3억5천만원에 재계약

'빅쇼이' 최희섭(28·KIA·사진)이 올해 연봉에서 동결된 3억5천만원에 재계약했다.

미국 LA에서 개인훈련중인 최희섭은 28일 이영철 부단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연봉 동결에 합의하고 계약을 마쳤다.

최희섭은 "올 시즌 팀 성적이 최우위를 기록해 안타까웠다"며 "체력 및 타격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내년 시즌 더 많은 타점과 홈런으로 팀 상승에 일조하겠다"고 재계약 소감을 밝혔다.

국내무대로 복귀한 최희섭은 부상으로 2달 가량의 공백기를 보내며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7 홈런·46 타점)을 기록해 연봉 삭감대상으로 꼽혀왔다.

KIA의 이영철 부단장은 연봉 동결에 대해 "성적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메이저 리그로서 흥행에 큰 몫을 했다고 판단, 팀 차원에서 대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화의 에이스 류현진(20)은 올해보다 80% 인상된 1억8천만원에 연봉 재계약을 끝내 역대 3년차 최고 연봉을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권투 끝내고 싶다... 맞는게 두렵다”

‘의식 불명 복서’ 최요삼

일기장에 심적 고통 표현

“이제는 끝내고 싶다. 권투를.. 맞는게 두렵다”

뇌수술 후 나을까 사경을 헤매고 있는 복서 최요삼(34·승민체육관)의 일기가 28일 공개됐다. 최요삼이 작년 여름부터 지난 25일 경기 직전까지 틈틈이 써둔 다이어리 한 권 분량의 일기엔 마음속 상처, 링에 오르기 전 그가 느껴야 했던 공포감, 소박한 소망 등이 담겨 있다.

2005년 6월 링을 떠났다가 작년 12월 복귀전을 치른 그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건 작년 7~8월 어느날부터였다. 이때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힌 건 1999년 라이트플라이급 세계챔피언이 된 직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한 마음의 상처였다. 당시 최요삼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여파와 식어버린 복싱 열기로 방어진 일정조차 잡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인간적인 배신 등 갖가지 심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를 버리고 간 사람들이 너무나 생각난다. 권투도 나를 버릴까” “내 가슴 속에 상처가 너무나 많이 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감량의 고통도 심했다. 운동을 쉬면서 체중이 60kg 이상으로 불어났던 그는 플라이급 한계 체중(50.8

kg)에 맞춰 10kg 이상을 줄여야 했다. 작년 8월9일자 일기에서는 “54kg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적기도 했다.

실패의 두려움과 외로움도 컸다. 2002년 4차 방어전에서 세계타이틀을 잃은 뒤 2003, 2004년 2년간 세 차례나 정상 복귀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그는 또 다시 질 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몸을 떨며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다. “얼마 남지 않았다. 또 패장이 될 것인가” “집중이 되질 않는다. 다 끝내고 싶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다” “한계를 느끼고 있다. 너무나 오래 쉬었다.. 자신이 없어진다. 내일이 두렵다.” “외로움이 너무나 무섭다. 너무나. 더 외로워야 할까”

그가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면서까지 꿈꾼 건 무엇이였을까. 챔피언 벨트? 돈? 명예? 작년 8월 몽골 전지훈련을 갔을 때 적어둔 그의 일기 한 권엔 세상 사람 누구나 꿈꿀만한 소망이 적혀 있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예쁜 집을 짓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제는 피 냄새가 싫다.. 내일이 두렵다”

한편 한국권투위원회는 28일 한국 프로권투 체육관 협의회와 함께 최요삼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예금계좌(신한은행 140-007-929850,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권투위원회', 문의 (02)980-3440~2

삼성화재 VS 현대캐피탈 내일 또 맞대결



‘진정한 라이벌 대결은 이제부터’ 남자 프로배구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와 삼성화재 블루팡스가 30일 오후 2시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2007-2008 V-리그 2라운드 대결을 펼친다.

2005년 프로 출범 이후 신명나는 승부를 연출해온 두 팀은 지난 1일 1라운드 개막전에서는 삼성화재의 3-0 완승으로 싱겁게 끝나면서 팬들을 실망시켰다.

하지만 지난 두 시즌 챔피언 현대캐피탈이 2라운드 들어 외국인선수 없이 4연승으로 ‘장신군단’ 위용을 회복했고 삼성화재도 톱니바퀴 조지력으로 8연승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불꽃튀는 한 판이 기대된다.

최홍만-표도르 31일 대결

키 218cm 거인이 과연 ‘주먹 황제’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까.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27)이 31일 일본 사이타마아레나에서 열릴 종합 격투기 프라이드 마지막 대회 ‘아렌노카! 오미소카’ 대회에 출전, 세계 최강의 파이터 표도르 에벨리아넨코(31·러시아)와 격돌한다.

둘의 맞대결은 표도르의 장기인 그라운드 기술을 허용하는 종합격투기(MMA) 규칙으로 치러진다. 1라운드 10분, 2라운드 5분 방식으로 진행되며 승부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연장전 없이 3명의 심판 판정으로 승패가 가려진다. 무승부도 없다.

그동안 입식 타격으로만 싸워 온 최홍만은로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식이다.

케이볼 채널 XTM이 아렌노카 대회를 오후 9시부터 중계할 예정이다.



이게 바로 ‘에어덩크’

28일 텍사스주 달러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센터에서 벌어진 2007-2008 미국프로농구(NBA) 달러스 매버릭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경기에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르브론 제임스(왼쪽)가 에어덩크 슈트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토)

- ▲07/08 프로농구(LG : 오리온스)(14 : 50·SBS스포츠), <삼성 : KTF>(14 : 50·X-SPORTS)
- ▲07/08 여자프로농구(신한은행 : 삼성생명)(16 : 50·SBS스포츠)
- ▲07/08 NBA(올랜도 : 마이애미)(09 : 30·MBC ESPN)
- ▲07/08 대학농구 씨름 안동한마당 용장급(14 : 00·MBC ESPN)
- ▲07/08 V리그 남자부 (LIG : 대한항공)(14 : 30), 여자부(도로공사 : GS칼텍스)(17 : 00·KBS N SPORTS)

30일 (일)

-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웨스트햄 : 맨체스터Utd)(00 : 00), <에버튼 : 아스날>(02 : 00·MBC ESPN)
- ▲07/08 프로농구(KTF : KCC)(14 : 55·SBS스포츠), <동부 : 삼성>(14 : 50), <SK :

전자랜드(17 : 00·XSPORTS)

- ▲07/08 여자프로농구(KB국민은행 : 우리은행)(16 : 50·SBS스포츠)
- ▲07/08 네덜란드리그(SC헤렌벤 : 페예노르트)(22 : 10·SBS스포츠)
- ▲07/08 V리그 남자부 (삼성화재 : 현대캐피탈)(13 : 30), <한국전력 : 상무>(19 : 00), 여자부(KT&G : 흥국생명)(16 : 00·KBS N SPORTS)

31일 (월)

-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맨체스터시티 : 리버풀)(01 : 00·MBC ESPN)

합모-윈도 외환권기래 전문기업

특별리 회원권

골프장 시세평가	골프장 시세평가
평 주 3,500	투 심비 1,800
남 권 4,200	주 권도 2,400
월임900	도 월임 3,000

상담 문의 (062)351-0095